

지역 소식 통

부안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사후관리 심사 '적합'

부안군은 지난 9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사후관리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심사는 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스템 운영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절차이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탐지·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 전반에 걸쳐 반부패요소를 내재화하는 국제표준 인증제도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기준에 따라 외부 인증기관이 주관했으며 부패리스크 식별과 평가 개선 계획 수립 및 실행, 내부 심사 및 경영 검토 등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 절차에 대해 정밀한 검토를 받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생고을시장, 14일부터 국산 농축산물 20% 할인

정읍 생고을시장에서 오는 14일부터 6일까지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특별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전국 대표 전통시장 17곳이 참여한다. 전북에서는 생고을시장이 유일하게 선정돼 운영된다.

행사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2개월간 진행되며, 2주 단위로 4회에 걸쳐 나누어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해 생고을시장 상인회 1층 고객센터에 마련된 이용권 발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이곳에서 결제금액의 20%가 추가 충전된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용권은 5000원 단위로 구매 가능하다. 예를 들어 2만원 결제 시 2만 4000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아 행사 참여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의 참맛 · 멋 · 경치 찾아라

‘정읍보물’ 3미·6품·9경 선정… 지역 브랜드 가치 높여 관광 활성화 건인

정읍시가 지역 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정읍 관광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읍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와 특산물, 음식을 아우르는 ‘정읍보물’ 선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맛(3미), 특산물(6품), 명소(9경) 분야에 각각 대표 주자를 선정해 외부 관광객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읍보물’ 후보 제안 공모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정읍을 대표할 만한 △음식 후보 46개 △특산물 후보 54개 △관광명소 후보 50개가 시민들의 제안을 통해 접수됐다. 시는 접수된 총 150개의 후보

목록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의 신중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1차적으로 후보군을 압축해 △10미(味) △18품(品) △21경(景)을 선정했다.

현재 시는 1차 선정 결과를 토대로 최종 3미·6품·9경에 더 가까워지기 위한 2차 선정(6미, 10품, 15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한 전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조사의 시작으로, 최근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했던 벚꽃축제 행사장에 홍보 판넬을 설치해 현장 선호도 조사를 진행해 방문객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했다. 시는 앞으로 정읍역과 시청 등에서도 추가적인 오프

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설문지를 배포해 시민들의 의견을 더 폭넓게 모아 정읍보물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 창구도 마련했다. 정읍시 공식 소통방 설문조사와 공식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전국민 선호도 조사가 11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시는 이 온라인 조사 기간 동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협약 체결

부안군, 새만금 내측 100메가와트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 추진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9일 효성중공업 컨소시엄과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은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100MW 씩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 권리를 부여받은 4개 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으며 군은 배분된 100MW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남측 공유수면 2구역에 조성하고 발전소 건설 후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군은 그동안 네 차례의 사업시행자 선정 공모 끝에 제안서 평가를 거쳐 지난해 8월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10여 차례의 협상단 회의 끝에 이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서는 주민 참여를 통한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 지역발전기여금 납부, 지역업체·지역기자채 참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 지역과 기업의 상생에 중점을 뒀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은 총투자비 2600억원을 투입해 발전시설을 건설, 20년간 사업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시민 삶의 질 높이는 현장행정 ‘총력’

어린이 전용병동 · 소아외래진료센터 개소로 소아 의료서비스 강화

정읍시가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여가생활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직접 행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9일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여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 현장 곳곳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현장에서 직접 논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립숲체원 진입



로 개설 예정지 △리버랜드물 놀이동산

조성 부지 △어린이전용병동 · 소아외래진료센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선 사항을 지시했다.

국립숲체원 진입로 개설 현장에서는 숲체원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안전과 접근 편의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진입로 노선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 현지 시장개척에 나섰다.

농특산물 미국 수출 교두보 마련

심덕섭 고창군수, 바이어 초청 현지 상담회 · LA 한남마켓 판촉행사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 현지 시장개척에 나섰다.

심덕섭 군수를 단장으로한 방문단은 지난 8일 미국 LA한남체인 마켓을 방문해 고창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열었다. 판촉행사는 한남체인 플라자점, 토렌스점 2개 매장에서 오는 18일까지 개최된다. 복분자즙, 고춧가루, 천일염, 한파 등 고창군을 대표하는 30여 품목이 LA 한인교포 및 현지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

풍천장어, 고구마말랭이 등의 특산품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으며, 판촉 행사 개장 후 한남체인과 연간 50만불(7억원)상당의 수출협약을 체결해 고창 농특산물의 대미 수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9일엔 LA 힐튼호텔에서 현지

농식품 바이어를 초청, 고창 농특산물 수출 상담회도 성황리에 열렸다. 현지 바이어 5곳이 참여한 가운데 고창상품시식, 상담을 통해 고창 상품의 수출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고창군에서 역점적으로 준비 중인 김치산업 관련 절임배추, 양념류, 김치 등을 소개하며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미국은 인구 3억3000만명의 세계 최대 단일시장이다. 한국의 농식품 대미 수출이 매년 10% 이상 상승할 정도로 K푸드의 인기가 상당하다”며 “최근 무역관세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미국시장에 고창 특산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판로개척을 통해 고창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게르마늄 온천 등 품격있는 웰니스의 정석’

고창군 웰파크시티, 한국의 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

고창군 웰파크시티(welparkcity)가 한국의 우수 웰니스 관광지 88선에 선정됐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한국의 우수 웰니스 관광지 88선’ 중 고창 웰파크시티가 신규로 포함됐다.

고창웰파크시티는 ‘국내 최고 리조트형 건강 리타이머먼트 빌리지’를 표방하고 있다.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온천에서 수만 자국을 통해 물리치료의 효과를 느낄 수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도 있다.

또한 황토와 피톤치드로 만들어진 숙소와 황토길 체험장, 면역 산책로를 걷다 보면 몸에 쌓은 노폐물을 배출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건강식 면역반향 등 웰니스 여행의 요소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90개 객실을 갖춘 웰파크호텔도 운영을 시작했다.

‘웰니스’란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고창군은 선운산, 운곡탐사르습지, 고창읍성 맹꽁이생태관 등 전례의 자연환경 속 명상 힐링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